

산업별 경기양극화의 추이와 대응방안



김 원 규

〈산업연구원 산업계량분석실장〉

■ 目 次 ■

1.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기양극화
2. 산업간 양극화와 산업구조변화
3. 전통산업과 ICT산업간
경기양극화
4. 경기양극화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1.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기양극화

97년말 급작스럽게 찾아온 외환위기의 여파로 한때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있던 우리 경제는 이듬해인 98년 3분기에 저점을 통과하면서부터 급속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97년에는 5.0%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외환위기 기간인 98년에는 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99년에는 다시 10.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는 99년에 비해 그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과 회복국면을 겪는 과정에서 특기할만한 현상으로 대두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산업간·지역간의 경제성장의 불균형 현상,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빈익빈·부익부의 소득 불균형 현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전통산업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산업간 양극화 현상에 대한 찬반논쟁은 지속적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 산업간 양극화와 산업구조변화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지표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주)}
경제성장률(%)	5.0	-6.7	10.7	10.4
실업률(%)	2.6	6.8	6.3	4.2
경상수지(억 달러)	-81.7	403.6	244.8	77.3
주가(평균)	654.5	406.1	806.8	771.5
환율(원/달러, 평균)	1415.2	1207.8	1145.4	1119.1

주) 2000년도 수치는 3분기까지의 누적 또는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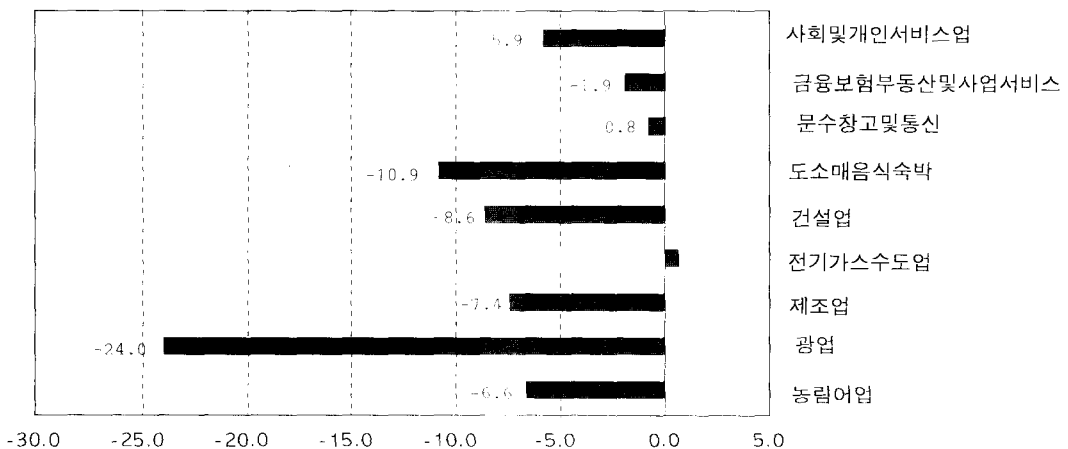
외환위기는 성장만을 지속해온 우리경제에 있어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고통과 교훈을 던져 주는 사건이었다. 97년말 외환위기가 몰고 온 한파는 98년에 우리 경제를 -6.7%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끌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광업이 -24%, 제조업이 -7.4%,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0.9% 등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전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99년과 2000년에 들어서면 다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고, GDP 기준으로 97년 수준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산업별로 97년 수준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제조업이 130.5%, 전기·가스·수도업이 122.8%, 운수·창고·통신업이 135.0%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농림어업(99.6%), 광업(81.2%), 건설업(80.0%) 등은 97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9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산업간 회복속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GDP 증가율에 기여한 각 산업별 기여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98년의 산업별 성장률 분포(%)



자료 : 한국은행

외환위기의 극복 수준비교(97년 대비)

(단위 : 1997=100.0)

	1998년		1999년		2000년
	1~3분기	연간	1~3분기	연간	1~3분기
GDP	93.0	93.4	102.1	103.3	112.8
농림어업	95.1	76.0	101.2	97.7	99.6
광업	76.3	92.6	79.6	80.0	81.2
제조업	91.4	100.6	109.6	112.7	130.5
전기·가스·수도	101.3	91.4	108.5	109.8	122.8
건설업	93.4	89.1	84.1	82.1	80.0
도소매·음식·숙박	88.1	99.2	98.7	100.8	109.3
운수·창고·통신	99.4	98.1	113.8	115.2	135.0
금융·보험·부동산	97.7	94.1	103.0	103.4	106.0
사회·개인서비스	93.8	93.3	101.8	102.1	106.0

주 : 한국은행

99년의 GDP 증가율 10.7% 중 제조업이 6.4% 포인트,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6% 포인트, 운수·창고·통신업이 1.3% 포인트를 각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설업은 GDP 증가율을 1.1% 포인트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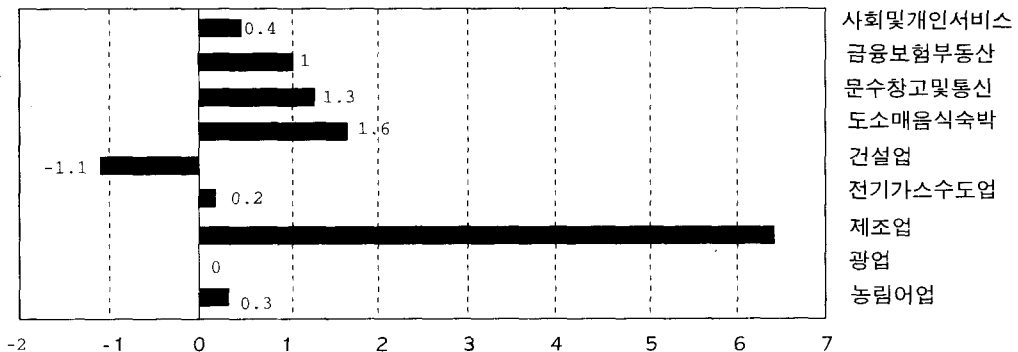
이렇듯 대부분류 산업내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간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작금에만 문제시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경제가 발전해

오는 과정을 통해 경험하였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항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실질 GDP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80년 기준으로 GDP 대비 12.7%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농림어업은 9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비중이 10% 이하로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반면에,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비중은 80년에 33.8%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공히 40% 수

GDP증가율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1999년)

자료 : 한국은행



준으로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70년에 GDP 중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80년대와 90년대는 30% 수준으로 그 비중이 증가한 반면, 90년에 GDP 중 11.4%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건설업은 95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점점 줄어 99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에 의해 더욱더 그 가속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간 경기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한 것이라 여겨진다.

3. 전통산업과 ICT 산업간 경기양극화

대분류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업종별로 분리하여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업종간 특성과 산업구조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CT산업과 전통산업간의 경기양극화 현상을 확인하고 산업간 양극화의 현상을 좀더 심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는

제조업이 비록 최근의 GDP 성장세를 주도하고는 있지만, 제조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주도산업과 비주도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거친 후 제조업의 경우 2000년 1~3분기의 부가가치가 97년 1~3분기 대비로 130.5%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1~10월의 KJET 제조업 경기지수는 97년 대비 135.4%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내 각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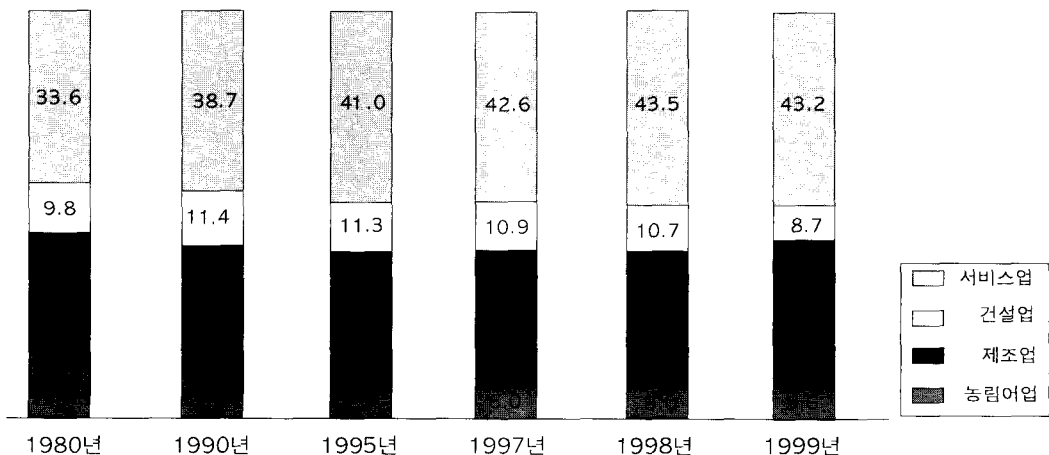
2000년 1~10월에 97년 대비로 제조업 경기를 주도했던 산업은 사무회계용기기, 영상/음향/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을 들 수 있다. 나머지 산업들은 98년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나머지 산업들 중 섬유, 가죽/신발, 나무, 종이, 석유정제,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 전기기계 등 9개 산업의 경우는 2000년 1~10월의 경기지수가 97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하였지만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환위기의 기간동안 전년대비 -7.4%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 영상/음향/통신장비, 사무회계용기기 등 3개 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보였던 99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성장률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양(+)의 방향으로 기여를 한 가운데 영상/음향/통신장비(7.5%), 자동차(4%), 사무회계용기기(3.7%) 등의 3개 산업이 제조업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전통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98년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99년의 성장률이 53.4%를 기록함으로써 제조업 성장세에 일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7년 대비로는 성장세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한편, 영상/음향/통신장비, 사무회계용기기 등 소위 ICT산업은 98년의 외환위기 동안에도 성장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전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산업들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산업별 경기지수^{주)} 추이(1997년 대비)

(단위 : 1997 = 100.0)

	1998년	1999년	2000년(1~10)
제조업	82.8	112.5	135.4
음식료품	83.8	97.3	101.5
섬 유	86.4	97.8	98.4
가죽/신발	69.1	74.7	67.9
나 무	48.9	72.4	80.0
종 이	82.4	95.2	96.2
석유정제	83.2	91.0	93.4
화 학	91.3	103.5	111.9
고무/플라스틱	71.9	89.8	97.1
비 금 속	69.1	76.6	83.4
제1차 금속	78.8	91.6	02.1
조립금속	72.	78.8	79.5
기계장비	59.1	78.4	103.6
전기기계	63.1	91.1	99.8
사무회계	101.1	239.2	423.5
영상/음향/통신	129.9	204.0	285.5
정밀기기	78.1	96.2	108.9
자 동 차	50.5	91.5	104.2
기타운송	142.3	157.7	140.3

주) 상기의 경기지수는 생산지수, 출하지수, 가동률지수를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 산정방식과 유사한 단순종합방식에 의해 종합한 것임.

도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간 경기양극화의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조업내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 성장과 함께 업종간의 지속적인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90년에 각각 9.9%와 10.9%로 제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음식료품, 섬유 등의 산업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어 99년에 와서는 6.8%, 4.0%로 각각 감소하였다. 그리고 가죽/신발, 나무, 종이,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조립금속, 전기기계 등의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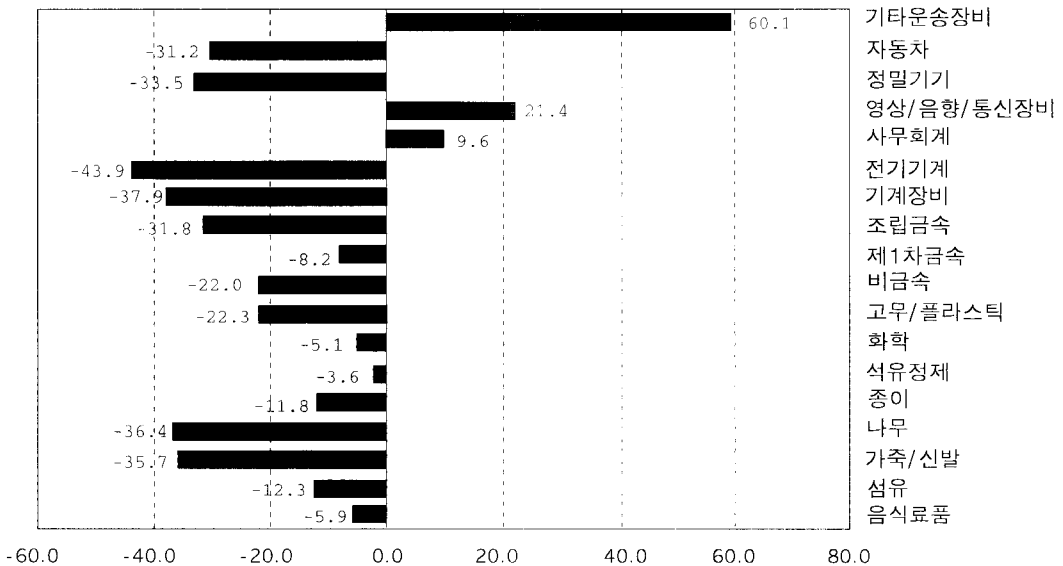
그러나 제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영상/음향/통신장비, 자동차, 사무회계용기기 산업의 비중은 99년 기준으로 37.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성장세가 최근의 전반적인 제조업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4. 경기양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대분류 산업 중 제조업과 건설업간에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특히 제조업내의 전통산업과 ICT산업간의 양극화현상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즉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경제가 장기간 호황을 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ICT산업의 발전은 산업간의 전후방 연관관계를 통하여 여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더욱이 외부효과(externality)를 통하여 여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즉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산업별 경기양극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경제적·사

98년의 제조업 업종별 성장 분포(%)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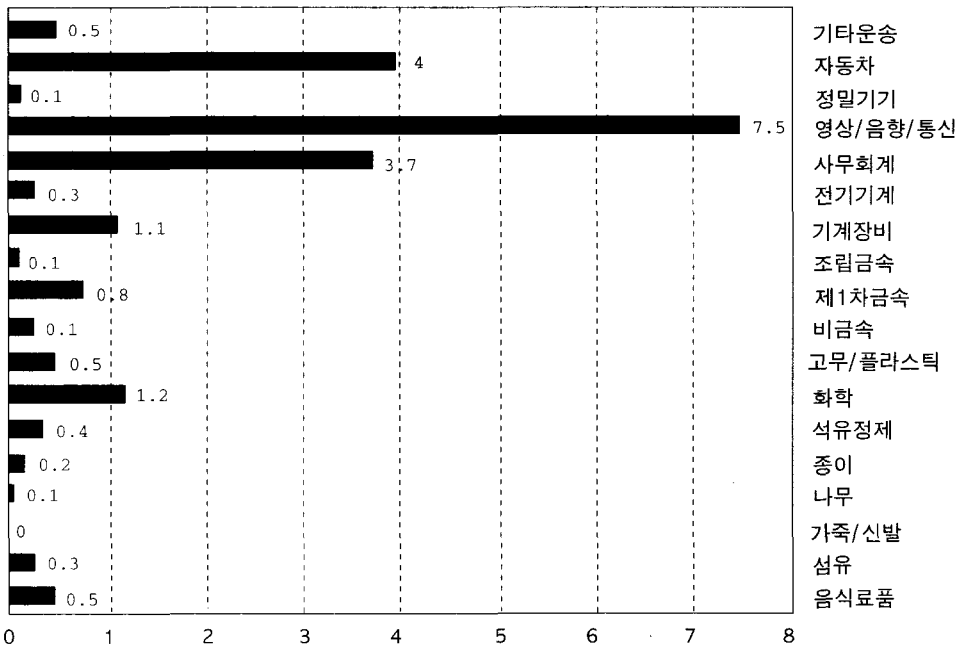
회적 불균형의 심화, 성장주도산업의 거품화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특정산업에 의하여 전체 경제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그 산업의 경기가 침체될 경우 새로운 성장산업의 부재로 경기침체의 골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이 배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별 경기양극화는 지역별 경기양극화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경제 전체의 지속적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주도산업에 대해 비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자칫 거품현상을 초래하여 산업간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킴으로써 여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산업별 경기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ICT산업의 외부효과 극대화에 바탕을 두면서 기존 전통산업을 지식기반화하여 고부가가치·고효율성 산업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전통산업들도 자성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경영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이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책적인 면에서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공고히 하기위해 정보통신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 경기양극화가 지역별 경기양극화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지역력

제조업 성장률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1999년)



자료 : 한국은행

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앞으로 ICT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것이 향후 기존 산업들의 새로운 핵심역량임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의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고부가 가치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부·기업 공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력육성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자체에 대한 필요 인력의 확보

차원에 국한하여 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전체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력 수요를 감안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업들은 끊임없는 자체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외에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산업 등 새로운 지식집약(knowledge intensive)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제조업내의 산업구조

(단위 : %)

	1990년	1995년	1997년	1998년	1999년
음식료품	9.9	8.2	7.6	7.8	6.8
섬 유	10.9	6.0	4.8	4.6	4.0
가죽/신발	3.8	1.3	0.9	0.6	0.5
나 무	1.3	0.8	0.7	0.5	0.5
종 이	2.3	2.2	2.1	2.0	1.8
석유정제	3.9	6.3	7.6	7.9	6.8
화 학	8.7	9.8	10.8	11.1	10.1
고무/플라스틱	3.7	3.5	3.1	2.6	2.5
비 금 속	4.6	4.3	4.1	3.4	3.0
제1차 금속	7.7	8.5	8.3	8.2	7.4
조립금속	5.2	4.4	4.3	3.1	2.7
기계장비	4.2	6.2	5.3	3.5	3.8
전기기계	2.2	2.4	2.0	1.2	1.3
사무회계	0.8	1.1	2.1	2.5	5.1
영상/음향/통신	9.9	13.2	16.0	20.9	23.3
정밀기기	0.7	1.1	1.0	0.7	0.6
자 동 차	8.5	10.7	10.0	7.4	9.4
기타운송	1.9	2.7	3.5	6.0	5.3

자료 : 한국은행